

# ‘这/那个’ 한국어 번역시 의미 은현(隱現) 및 변이 양상에 대한 소고

기 유 미\*

## <目次>

- |                            |                         |
|----------------------------|-------------------------|
| I. 서론                      | III. ‘这/那个+N’ 번역 양상     |
| II. 선행연구                   | 1. ‘这/那个+N(사람지칭·묘사)’    |
| 1. ‘这/那’의 기능과 용법에<br>관한 연구 | 2. ‘这/那个+N(인칭대명사)’      |
| 2. 한중(중한) 대조 관련 연구         | 3. 소결                   |
|                            | IV. ‘这/那个+V/A’ 및 ‘那个+Ø’ |
|                            | V. 맺는말                  |

## I. 서론

본 연구의 시작점은 지시사와 인칭대명사가 조합된 한 예시의 번역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바로 “收下哥的花, 忘了那个他”라는 문구인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오빠의 꽃을 받고, 그는(그 사람) 잊어.”이다. 한국어에서 “他(그)”의 의미는 필요하지만, “那个”는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면 “那个”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뒤에 놓인 인칭대명사의 의미는 “그”보다 “사람” 또는 다른 명사가 자연스럽다. 종래에 지시사와 관련한 한중(중한) 비교 논문은 일부 연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용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본래 ‘这/那’ 자체도 문장에서의 기능과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강사

용법이 단순하지 않지만, 위의 예시에서 나타난 ‘这/那个+N(인칭대명사)’의 번역도 발화 상황에 따라 은현(隱現)<sup>1)</sup>되거나 변이되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위의 형식을 확장하여 ‘这/那个+N(사람지칭·묘사)’ 및 ‘这/那个+V/A’ 등의 번역 양상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 1. ‘这/那’의 기능과 용법에 관한 연구

지시사의 중한 번역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这/那’의 기본적인 기능과 용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자, 그 관련 연구를 선두로 제시하였다.

지시사는 사물이나 장소 등을 가리키는 역할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으며, 또 글의 서술에 있어서는 중복을 피하고, 간단한 전달을 돕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약방감초이다.

이러한 지시사의 기본적인 지시 기능(근거리 및 원거리 지칭)에 대한 설명은 朱德熙(1982:85) 《语法讲义》, 王力(1985:212) 《中国现代语法》 등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이후 지시사의 전문 저서 吕叔湘(1985) 《近代汉语指代词》에서는 기능을 세분화하여 “称代”와 “承接”기능<sup>2)</sup>에 대해서도

- 1) 어떤 대상이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을 뜻하는데, 본래 통사론에서는 문장성분이 출현하거나 비 출현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번역시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포괄하기 위해 은현(隱現)의 글자그대로의 의미를 차용하였다.
- 2) “称代”(또는 “替代”) 사람, 사물, 사건을 대신하여 나타냄. 이때 당면한 대상 혹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을 대신하며, 해당 관련 명사를 생략하지 않으면 直接称代 반면 명사가 생략(양사 보존)되면 转成称代라 명명하였다.(吕叔湘, 《近代汉语指代词》, 学林出版社, 1985, 183쪽.) 또 龙娴(2013)는 称代의 기능의 “这/那”는 문법적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사람, 사물, 사건 등을 대신한다고 설명하였다. 예: 这是我们的汉语老师. 그리고 “承接”는 내용을 이어주어 어감과 분위기를 완화시키거나, 긴요한 상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예: 这个, 我已经有个主意了.(龙娴, 〈汉英指代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내 학술문헌 및 논문 등을 제공하는 中国知网을 통해 살펴본바, 80~90년대에는 지시사의 기능을 논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가운데 주로 나타난 연구 형태는 각기 다른 방언을 묘사하거나 또는 중국어와 다른 외국어 간의 번역상의 차이를 비교한 논문<sup>3)</sup>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그중 일어와 영어가 가장 많았다. 그 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시사의 기능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丁启阵(2003)는 지시사 ‘这/那’의 기능을 다양한 기준에서 대조하여 제시하였는데, 우선 기본적인 근, 원거리 지칭은 공간, 시간외에 심리적 거리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화제(topic) 혹은 비 화제를 나타내는 표현<sup>4)</sup>에서도 ‘这’와 ‘那’가 대조적으로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已然(이미 발생한 상황)과 未然(아직 나타나지 않은 앞으로 발생할 상황)의 기준, 지칭하는 대상이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인가 아닌가에 따른 实指와 虚指的 구분 그리고 共时式叙述과 回忆式叙述<sup>5)</sup>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는데, 이중 전자는 이야기가 서술되는 현시점을 서술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발화자가 현시점과 떨어진 시간 또는 공간에 대해서 회상하듯 서술하는 경우이다. 또 方梅(2002)의 경우 문맥, 상황 및 화자, 청자를 고려하여 담화 중 나타나는 ‘这/那’의 기능에 대해 “情景用”(situational use)<sup>6)</sup>, “示踪用”(tracking use), “语篇用”(textual use)<sup>7)</sup>,

词“这/那”与“this/that”的对译, 《湖南师范大学》, 2013, 3쪽.)

- 3) 张济民(1987)〈苗语川黔滇方言的指示词〉, 张惠英(1994)〈闽南方言常用指示词考释〉, 张惠英(1997)〈汉语方言代词研究〉 및 许余龙(1989)〈英汉远称指示词的对译问题〉, 余宏荣(1998)〈英汉篇章中指示代词照应作用的对比及其在翻译中的应用〉 등.
- 4) 예: 那头牛是 1993年 4月从法国北部出口到英国的, 在1994年 6月被诊断患有疯牛病, 是在这头牛到达英国14个月之后. 科学家们说, 疯牛病毒的潜伏期从来不少于22个月, 因此这头牛肯定是在法国染上疾病的. ‘那’를 사용한 비 화제 표현이 화제(topic)로 변화되면서 ‘这’를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음.(丁启阵, 〈现代汉语“这”、“那”的语法分布〉, 《世界汉语教学》, 2003, 30쪽.)
- 5) ‘这’는 대체적으로 已然과 实指 그리고 共时式叙述에 사용되며, ‘那’는 그와 상반되는 경우를 주로 나타낸다.(인용출처 상동)
- 6) 한국어에서는 “실재적 지시”(장경희(1980)), “현장지시” 등으로 지칭됨. (전기

“认同用”<sup>8)</sup>(recognition use)<sup>9)</sup>의 4가지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하였다.

이상 丁启阵와 方梅의 다양한 해석은 초기 문법에서 단순화된 지시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각화하는 것에 일조하였다.

최근에는 지시사의 확장된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付敏(2010)은 ‘那个’의 기능을 단독으로 제시하였는데, 화용적인 측면에서 화제 전환, 정보수정<sup>10)</sup>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돌려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더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熊岭(2018)은 지시사의 직접적인 지시(直指) 기능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기능을 “助指”, “凸显提示标记” 및 “领属定语标记”로 제시하였다. “助指”는 “指(一)量”<sup>11)</sup>의 형식으로 지시하는 대상을 하나뿐인 유일한 대상으로 지칭하는 기능을 한다. “凸显提示标记”의 경우는 “指示词+有定名词”<sup>12)</sup>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지시사의 뒤에 나타나는 대상은 앞서 이미 제시된 정보이거나, 화자와 청자가 공통적으로 알

정(2008))(장경희,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980; 전기정, <한국어 이,그,저와 중국어 ‘这, 那’의 지시 관계 비교>, 《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287쪽.)

- 7) “示踪用”과 “語篇用”은 “기호적 지시”(장경희(1980)), “문맥지시”(전기정(2008)) 등으로 지칭하고 있음.
- 8) “상념적 지시”(장경희(1980)), “개념지시”(전기정(2008)) 등으로 지칭됨.
- 9) 示踪用(앞서 이미 언급된 대상을 지시, 예: 还有一个东西是, 叫疙瘩的。就是, 在山西农民, 晋南一些人就吃这种东西。) 语篇用(앞서 제시된 진술 내용이나, 거론된 사건을 지시, 예: 听说你揍过他? -揍, 这也听说啦?) 认同用(앞서 출현한 대상은 아니지만, 화자와 청자가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 지시) (方梅, <指示词“这”和“那”在北京话中的语法化>, 《中国语文》, 2002.04, 343-344쪽.)
- 10) 화제 전환의 경우 예: 那个谁, 你去把垃圾倒掉.  
정보수정의 경우 예: 除了上班吧, 还有时候学, 那个什么听听课什么的还去学习一下. 대화 중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那个’를 사용해 간단하게 정보를 수정 한 경우. (付敏, <“那个”的语法分析研究>, 《文教资料》, 2010, 25쪽.)
- 11) 예: 你昨天看的那本书. (熊岭, <现代汉语指示词功能的扩展>, 《齐齐哈尔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8, 115쪽.)
- 12) 예: 不怕那太阳晒, 不怕那风雨狂. (熊岭, 같은 논문)

고 있는 대상으로 이때 지시사가 해당 대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领属定语标记”<sup>13)</sup>는 문장을 이어주면서 주관적인 평가(主观评价)가 나타나는 경우로 보고 있다. “领属定语标记”에 대한 관점은 张艳玲, 刁世兰(2006)에서도 이미 거론되었다. 张&刁는 지시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수식어와 피 수식어를 이어주는 “的”와 유사한 기능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다양한 관점 외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은 吕叔湘(1985), 刘薇(2011), 熊岭(2018)에서 ‘这/那’가 정관사<sup>14)</sup>에 상응하는 기능이 있다는 언급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론의 여지가 있으며, 본문에서 관련된 논의 중 다시 다루고자 한다. 이렇듯 화용적인 기능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 용어와 해석이 따라온다. 위와 같이 현재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지시의 기능을 넘어 화용적인 기능의 측면도 두루 논의되고 있다.

## 2. 한중(중한) 대조 관련 연구

중국어 지시사의 한국어 번역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관련 연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한중 지시사 자체에 대한 비교 연구가 다른 연구에 비해 많지 않았으며, 한중(중한) 지시사 번역에 대한 연구 또한 많지 않았다. 그에 반해 한영 지시사 연구의 경우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한일 지시사 연구도 다수<sup>15)</sup>를 차지하였다.

한중 지시사 비교 연구 가운데 몇 편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전기정(2008)은 “현장지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사 기능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한국어 지시어는 화자의 시점을 중심으로 하지만 청자

13) 예: 他那纯真的笑脸。(熊岭, 같은 논문)

14) 예: “这人怎么都这么坏”(刘薇, 〈现代汉语“这/那”类指示代词若干功能问题研究〉, 《安徽大学硕士学位论文》, 2011, 37쪽.)

15) 영중, 일중 지시사 연구는 中国知网에서도 80-90편에 가까운 연구가 존재하였지만, 한중 지시사 관련 연구는 10여 편 정도에 불과했다.

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화자와 근거리는 ‘이’, 청자와 근거리는 ‘그’ 그리고 화자, 청자 모두에게서 멀 경우에는 ‘저’를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중국어는 화자와 지시대상간의 원근에 따라 판단하여 ‘这’ 또는 ‘那’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중국어에서는 ‘这’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가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 두 언어의 지시사 간의 대응관계는 일반적으로는 ‘这’-‘이’ 및 ‘那’-‘그/저’로 해석되지만,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영역에서 서로의 영역이 겹쳐 대립된 시점을 가지는 경우<sup>16)</sup>에는 다른 대응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王曉桃(2011)에서도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사람, 사물 등)을 지시할 때에는 삼분법(‘이/그/저’)로 구분되지만, 시간과 같이 추상적인 지시의 경우에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이분법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사가 일대일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응용 영역도 넓기 때문에 겹보기와 달리 두 언어 간의 지시사를 명확히 정리하거나, 고정적인 규칙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 두 언어의 지시사를 더욱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외에도 김연은(2005), 박은숙(2012)<sup>17)</sup> 등은 한 언어에서는 나타나지만, 다른 한 언어에서는 생략되는 “零式照应”(zero reference)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현상 및 개념을 참고하여 지시사의 번역을 살펴본다면 두 언어 간의 새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6) A: 这是什么书?(**이것은** 무슨 책이죠?) B: 这是汉语书。(그것은 중국어책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A와 B 같은 영역에 있고, 지시 대상 ‘책’은 A의 영역에 있다. 이때, 중국어는 화자, 청자가 모두 ‘这’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어는 ‘책’이 화자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화자는 ‘이’를 그리고 청자는 ‘그’를 사용하고 있다.(전기정, <한국어 ‘이, 그, 저’와 중국어 ‘這, 那’의 지시 관계 비교>, 《중국 어문학논집》, 2008, 293-294쪽.)

17) 예: 曾获国内外多种文学奖。∅现定居北京。(중국 및 해외에서 각종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그는 북경에 거주하고 있다.) 박은숙(2012)의 연구는 지시사만이 아닌 중한 번역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 위에 제시된 예시는 본고의 연구 대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零式照应”의 개념만 참고하고자 한다. (박은숙, <中韩语篇对比与翻译研究>,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2012, 17쪽.)

위와 같이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这/那’의 기능에 대해 단편적으로 다룬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일부 비교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삼분법(‘이/그/저’)과 중국어의 이분법(‘这/那’)의 대응 관계 혹은 두 언어 간 번역시 ‘이’, ‘그(저)’의 출현 유무에 대해 묘사하는 연구가 주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这/那(个)’는 기본적인 지시의 의미 외에도 화제 제시 및 강조, 주관감정의 전달 등 다양한 기능<sup>18)</sup>을 타나낼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번역 양상을 충분히 거론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다양한 번역상의 차이를 통해 다시 역으로 한 중 지시사의 기능적인 특징을 더욱 세밀하게 재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这/那’는 단독 사용을 비롯해 그와 조합되는 대상과 응용형식이 비교적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这/那个’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그와 대응되는 명사(구)(사람을 지칭하거나 묘사하는 명사(구), 인칭대명사 포함), 동사 및 형용사와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번역양상<sup>19)</sup>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这/那个+N’ 번역 양상

#### 1. ‘这/那个+N(사람지칭·묘사)’

‘这/那个’는 문장에서 주로 사물, 사람, 장소, 시간, 추상 명사(구) 등과

18) 사실상 이러한 기능은 지시의 기능에서 한 층 변화된 비지시적 기능이라 할 수 있지만, 술어의 통일성을 위해 편의상 ‘지시사’ 본래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9)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번역본이나 병렬말뭉치 등의 자료를 일정량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해당 현상을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 필자의 생각 및 중국인 한국어 전공자에게 질의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这/那个’의 다양한 사용예시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 수집 범주를 다각화하여 신문기사, 영상 자료, 노래가사 및 기타 인터넷 자료 등 다방면의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출처는 예시마다 각각 표시하였다.

조합하여 나타난다.

- (1) 他面前的这个机器, 叫做切割架子。(中国新闻网 2014-11-02)  
→ 그의 앞에 있는 이 기기는 선반 절단기라 부른다.
- (2) 这个公园最大的特色就是公园东侧的“燕墩”文化遗址。  
(网易号2019-09-10)  
→ 이 공원의 가장 큰 특색은 공원 동편에 있는 “연둔”문화 유적이다.
- (3) 用优美的歌声让大家在这个金秋的十月与高雅艺术近距离接触。  
(中国日报网2015-10-27)  
→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여러분을 이 금추의 시월에 우아한 예술과 가까이 닿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 (4) “回到国内后, 我这个想法一提出来, 反对的人很多。”  
(北京日报2019-01-19)  
→ 국내로 돌아온 뒤, 나의 이 생각은 내놓자마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 (5) 那个春节, 郑瑜没在家吃年夜饭。(人民日报2019-08-30)  
→ 그 춘절에 정유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
- (6) 那个军人走的步伐很整齐。(中央电视台2012-10-07)  
→ 그 군인의 걸음걸이가 매우 정연하다.

위의 예시에서 ‘这/那个’는 각각 사물, 장소, 시간 등을 나타내는 명사와 조합하여 “这个机器(이 기기)”, “这个公园(이 공원)”, “这个金秋(이 금추(가을))”, “那个春节(그 춘절)”, “那个军人(그 군인)”으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어 ‘这/那’와 한국어의 ‘이/그’가 기본적인 지시의 의미로 그대로 대응되고 있다. 그러나 ‘这/那’의 뒤에 놓이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这/那个’가 단순히 ‘이/그(저)’로 번역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도 나타난다. 그 가운데 출현빈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는 바로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와의 조합인데, 세부적으로 인명(人名) 고유명사, 직함, 동일 부류를 총칭하는 집합명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7) 这个王晓棠, 她的镜头, 她的眼泪就像自来水管, 一开龙头就有, 要大就大, 要小就小。(吉林日报2018-07-10)

→ 이 왕효당 그녀의 신(scene)은 눈물이 꼭 수도관 같아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나오고, 또 많이 틀면 크게나오고, 작게 틀면 작게 나오죠.

예(7)에서 “这个”를 “이”로 간단히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원근에 의한 지시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 “王晓棠”은 현장에 있는 대상도 아니다. 화자는 “王晓棠”을 특별히 화제의 대상으로 놓고, 강조하고 있다. 구어로 전달되었다면 어감에서도 강조를 할 수 있겠지만, 자막이나 서면으로 전달이 된다면 “이”만으로는 충분한 어감을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단어를 부가하거나, 한국어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아래 (7')와 대조해보자.

(7) 这个王晓棠, 她的镜头, 她的眼泪就像自来水管, 一开龙头就有, 要大就大, 要小就小。(吉林日报2018-07-10)

→ “왕효당은 말이죠. 그녀의 신(scene)은 눈물이 꼭 수도관 같아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나오고, 또 많이 틀면 크게나오고, 작게 틀면 작게 나오죠.”

(7')은 “이” 대신에 화제가 되는 대상 뒤에 ‘말이죠’<sup>20)</sup>라는 군말을 더하여 청자(독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 아래에 유사한 예시를 더 살펴보자.

(8) “唉, 这个周杰伦真不容易, 现在的明星真是啥都得会啊。”

(新快报2015-02-20)

→ “아이구! 이 주걸룬도 정말 쉽지 않겠어. 요즘 스타들은 정말 뭐든 할 줄 알아야 하나까.”

20) ‘말이야’, ‘말이죠’, ‘말이지’, ‘말인데’ 등은 어감을 고르게 하는 군말로, 상대방의 주의를 끌 때 나타나는 말이다. (국립국어원)

→ “아이구! 주걸륵도 **말야** 정말 쉽지 않겠어. 요즘 스타들은 정말 뭐든 할 줄 알아야 하니까.”

(9) “这个金书记究竟何许人也, 居然被老百姓称为“大侠”?”

(农民日报2019-08-16)

→ “**이** 김 서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대중들에게 “협객”이라 불리는 걸까?”

→ “(이) 김 서기는 (**말이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대중들에게 “협객”이라 불리는 걸까?”

위의 예(8)에서 “(이) 주걸륵”이라는 표현보다 두 번째 표현이 더욱 실제적인 어감이 담겨 전달된다. 또 “~도”의 보조사를 더하여 놀라움, 감탄 따위의 감정을 강조<sup>21)</sup>하여 전달하였다. 예(9)에서는 “말이지”를 부가하지 않은 첫 번역도 대체로 무난하지만, 부가한 경우에는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주요 화제로 두드러지게 한다. 앞에 “이” 역시도 대상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这个”와 인명(人名) 고유명사와의 조합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예시를 보자.

(10) 这个光头强! 说好的比赛, 竟然不等我们, 自己先放了, 我要去找他。

(《熊出没》动画片)

→ “**이** 광두강! 약속한 시합인데,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공명등을) 날렸어. 그를 찾아가야겠어!

→ “(이) 광두강 **말이야!** 약속한 시합인데,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공명등을) 날렸어. 그를 찾아가야겠어!

→ “**이놈의** 광두강! 약속한 시합인데,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공명등을) 날렸어. 그를 찾아가야겠어!

예(10)의 화자는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2487](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2487))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치는 “(이) 광두강!”은 매우 강한 어감을 표현한다. 두 번째 번역의 경우는 앞선 예(7-9)과 유사하게 번역한 결과이고, 세 번째의 번역은 화자의 입장을 살려서 의역(意译)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어로 전달된다면 “이”에 특별히 강조의 어감을 더하면 되겠지만, 서면의 경우에는 다른 부가적인 수단이 필요하거나, 의미가 변이될 수 있다.

예(10)과 앞선 예시들의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화자가 대상 명사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선 예시 중 (7) 这个王晓棠 에서 화자는 해당 대상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8) 这个周杰伦 역시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9) 这个金书记 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상에 대한 의문과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예(10)의 화자는 거론한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예(7-9)은 화제의 대상을 이끌어 내는 정도로 번역될 수 있고, 예(10)는 상대적으로 강한 감정을 담아 의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 아래와 같이 ‘这/那个+N’의 앞에 다른 인칭대명사가 부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11) 参加培训的哈里哈村村民姜中平说, 他们这个王书记, 平易近人, 没架子。(河北日报2018-07-05)
- ? 연수에 참가한 하리하 마을 촌민 강중평은 **그들 이** 왕 서기는 붙임성이 좋고, 무계를 잡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 연수에 참가한 하리하 마을 촌민 강중평은 **그들** 왕 서기는 붙임성이 좋고, 무계를 잡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위 예시에서 “姜中平”은 자신들 촌의 “王书记”가 다른 대표들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임을 전달하고자 특별히 “这个”를 부가하여 해당 대상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번역과 같이 글자 그대로 “그들 이 왕 서기는”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다. 또 해당 문장은 화자의 직접적인 구어체가 아닌 일반 서술형 문장임으로 “왕 서기는”과 같이 화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는(은)”<sup>22)</sup> 정도만을 더하여 번역되었다.

위와 같은 “这个”의 기능에 대해서 흑자<sup>23)</sup>는 “这个”가 관형어와 중심어 사이를 이어주는 “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의 번역을 “그들의 왕 서기呢”라고 하는 것도 약간 어색하다.

다음은 위와 유사한 형식의 “那个+N”을 살펴보자.

(12) 你那个小儿子是个书呆子。(搜狐网 2016-06-01)

→ **자네 (그)** 막둥이 아들은 책벌레야.

(13) 我那个老二非常强大, 他不知道如何成功如何得到, 但他有让自己快乐的方法, 他是我的生命导师。(北京晚报 2016-01-05)

→ **제 (그)** 둘째 아들은 매우 강해요. 개는 어떻게 성공하고, 무엇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개가 제 삶의 스승이에요.

예(12)의 “你那个小儿子”와 예(13)의 “我那个老二”은 사실상 “你小儿子”, “我老二”로 간단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청자도 해당 명사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럼에도 화자는 “那个”를 사용하여 해당 대상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하여 꼭 짚어서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이는 대상이라도 청자에게 한층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한국어 번역에서도 “그”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전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강조를 위해 “그”를 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칭대명사+这/那个+N(사람지칭·묘사)’의 형식이 모두 위와 같이 번역되는 것은 아니다. ‘N’이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서 번역 양

22) 한국어에서 보조사 “은/는”은 보통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어 강조할 수 있고, 또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낼 수도 있다.(국립국어원)

23) 张艳玲, 刁世兰(2006)는 “这/那(个)+NP”형식을 중심으로 “我那个前妻”, “你们屋那个姓于的挺讨厌我是吗?”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你这车、你那车 → 你的车 / 我这(个)书包、我那个书包 → 我的书包의 관계로 “这/那(个)”를 설명하였다. (张艳玲, 刁世兰, <“我那个前妻”格式中的“那个”>, 《湖北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6, 93쪽.)

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아래 예시와 대조해 보자.

- (14) “没想到我这个小干部, 居然招了个大将军!” (北京晚报 2016-11-18)  
→ ? “**나 이** 계급 낮은 간부가 대장군을 불러들일 줄이야!”  
→ “**나 같은 (이)** 계급 낮은 간부가 대장군을 불러들일 줄이야!”
- (15) 其实我早就想使用加密软件了, 但PGP太复杂了, 对我这个电脑菜鸟来说更是如此。(现代快报 2014-06-05)  
→ ? 사실 저는 오래 전부터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PGP는 너무 복잡하고, **저 이** 컴퓨터 초보자에겐 더욱더 그렇고요.  
→ (앞 번역 위와 동일) **저 같은 (이)** 컴퓨터 초보자에겐 더욱더 그렇고요.

위의 예(14)과 (15)에서 小干部와 电脑菜鸟는 앞의 “我”의 상태, 특징을 설명하는 명사로 “我”와 동등한 관계를 가진다. (즉, “我”=“小干部”, “我”=“电脑菜鸟”) 그에 대응되는 한국어 번역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살려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가진 “같다”(보통 ‘~같은’ 꼴로 체언 뒤에 쓰임<sup>24)</sup>)를 첨가하여 표현하였다. 위 두 예시 모두 “这个”를 첫 번째 번역과 같이 단순 번역하기 보다는 조합된 명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두 번째 번역과 같이 내포된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표현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어 아래와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 (16) “你这个上海人怎么这么可恶, 居然连学历都假冒。”  
(解放日报 2014-08-22)  
→ ? 당신 **이** 상해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러운 학력조차도 죄다 위조를 했네.”  
→ 당신 **같은** 상해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러운 학력조

24) 당신 같으신 남자는, 어떤 경우에든지 남에게 눈물을 보여선 못습니다! 《상록수》(국립국어원)

차도 죄다 위조를 했네.”

(17) “既然你都这么说了, 我就答应吧, 你这个小气鬼。”(《蜡笔小新》动画片)

→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제가 받아들이죠. **당신 이** 잔돌이.....”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제가 받아들이죠. **이런** 잔돌이.....”

위의 두 예시에서 화자는 대상 “你”를 비난하는 강한 주관적인 어투를 표하고 있다. 예(17)은 화자의 불만 섞인 어투를 반영하여 감탄사 “이런”<sup>25)</sup>을 활용하여 번역하였다.

이상과 같이 “这个+N(사람지칭·묘사)” 형식의 다양한 번역 양상을 통해 “这个”가 단순히 “이(것)”의 지시적 의미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这个”가 더 허화(虛化)된 기능의 표현이다.

또한 ‘인칭대명사+这/那个+N’는 앞에 놓인 인칭대명사 종류의 영향을 받기도 하여,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18) “阿王(郭富城)都没长大过, 智商可能比女朋友还‘年轻’, 可能只有21岁, 可能她那个女孩还会嫌他幼稚。”(中国新闻网 2015-12-08)

→ “아왕(곽부성)은 다 자라지 않았어요. 지능은 아마 여자 친구보다 훨씬 ‘어릴걸요’, 21살 정도 일걸요. **그 아가씨가** 오히려 그가 유치하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위의 예시는 앞선 예시들과 표면 형식은 유사하지만,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우선, “她” = “那个女孩” 즉, “她”와 “女孩”은 동등 관계로 같은 대상이다. 따라서 “那个”가 생략되거나 “的”로 대체될 수도 없다. 또 화자는 “阿王(郭富城)”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여자 친구를 특별히 “那个女孩”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대상을 명확하게 짚어 제시하기 위해 “那个”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은 한국어 번역에서 3인칭 “她”와 “那个”간의 의미가 상쇄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위의 번역에서도

25) 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她”는 생략되고 “那个女孩”로만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의미가 상쇄되는 경우는 ‘这/那个+N(인칭대명사)’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다음 소절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那个+N’ 역시 위와 표면적 형식은 유사하지만, 단순 지시나 구별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 这四十万块钱, 绝对不能给她丈夫, 等孩子大了, 给孩子, 不给她那个丈夫。(新浪博客 2009-11-01)

→ 이 40만 원은 절대로 그녀의 남편에게 줄 수 없어. 아이가 크면, 아이에게 주지, 그녀의 그 남편에게 주지는 않을 거야.

→ (앞 번역 위와 동일) 그녀의 (그) 남편에게 주어서는 안 돼.

화자는 예(19)의 앞 구절(“绝对不能给她丈夫”)에서는 “她丈夫”라고 말하고, 이어서 뒤 구절에서는 “那个”를 부가하여 “她那个丈夫”라고 표현하였다. 이 앞뒤 두 구절 모두 “그녀의 남편에게는 줄 수 없다(주지 않는다)”로 전체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동일한 대상을 재차 거론할 때 “她那个丈夫”라 한 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 감정이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의 정확상 믿을만한 사람이 못되는 남편(대상)에 대해 못마땅한 감정을 싣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번역은 글자 그대로 일반적인 번역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번역에서는 남편(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 전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을 나타내는 표현”의 “동사 + -어서는 안 된다”<sup>26)</sup>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번역이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sup>27)</sup> 반드시 이와 같

26) 한국어기초사전(국립국어원)

<https://krdict.korean.go.kr/dicSearch/SearchView?ParaWordNo=89425>

27) 송승철(2009)은 번역 방법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직역이나 의역이냐의 택일보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송승철, <번역의 독립운동: 직역과 의역 논쟁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2009, 411쪽.)

은 번역이 최선의 번역이라 할 수는 없더라도 화자의 의도를 일부 표현해 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 아래와 같이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위해, 의도적으로 “那个+N”을 사용하기도 한다.

- (20) 李少红导演撇了一眼郭敬明之后, 直接说: 我不同意那个谁的看法!  
 没有提郭敬明的名字, 后期节目组把“那个谁”在字幕上换成了郭敬明。  
 (光明网 2019-10-20)

→ 이소홍 감독은 궁경명을 흘겨본 후에 말했다. 저는 그 누구하고 생각이 달라요.  
 궁경명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편집부는 “그 누구”를 “궁경명”으로 전환하여 자막 처리하였다.

위 예시의 발화 상황은 이소홍과 궁경명이 같은 프로그램에 출현한 상황이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님에도 이소홍이 궁경명의 생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부정의 감정을 “那个谁”에 담아 표출하였다. 여기서 “谁”는 ‘虚指’의 용법으로 “모르는 사람 또는 성명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sup>28)</sup>을 지칭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궁경명”의 실명을 “谁”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표현에 큰 효과를 주고 있지만, “那个” 역시도 생각이 나지 않거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sup>29)</sup> 사용할 수 있는데, 위의 상황에서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那个”와 “谁”가 모두 주관적인 감정표현에 제각기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那个”를 생략한다면, \*我不同意谁的看法가 되어 문장이 어색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那个+N”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있어 특별한 의도가

28)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2013, 1151쪽.

29) 예: 那个谁, 你去把垃圾倒掉。거기, 네가 쓰레기를 버리고 와라. (付敏, <“那个”的语法分析研究>, 《文教资料》, 2010, 25쪽.)

담겨있는 경우에 번역은 더욱더 고심할 필요가 있겠다.

## 2. ‘这/那个+N(인칭대명사)<sup>30)</sup>’

‘这/那个’와 인칭대명사의 조합은 명사와의 조합만큼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번역시 상황에 따른 변수가 종종 존재한다.

- (21) a. 《歌成就今天**这个**我》(侧田 歌曲)  
→ \* 노래가 지금의 이 나를 만들었어.  
→ 노래가 지금의 [ ]나를 만들었어.
- b. “从伦敦奥运会开始, 到2015年世锦赛之间的所有比赛, 我和吴景彪一起出战过多次, 从来没赢过他。” **这个**他, 是朝鲜人严润哲.....  
(中国体育报 2017-07-07)  
→ \* “런던 올림픽 때부터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까지 모든 대회에서 저와 우징바오는 같이 여러 차례 출전했었는데 한 번도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 그는** 북한사람 엄윤철이다.  
→ (앞 번역 위와 동일) **이 사람은** 북한사람 엄윤철이다.  
→ (앞 번역 위와 동일) **그는 바로** 북한사람 엄윤철이다.

우선 예(21a)에서 “这个”는 지칭을 위함이 아니라, 화자가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삽입된 것이다. 번역에서도 “这个”의 의미가 생략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청자가 이해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다.

또 예(21b)의 첫 번째 번역에서도 “这个”와 “他” 본래 그대로의 의미인 “이”와 “그” 역시도 나란히 제시되었을 때, 어색한 번역이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번역에서는 “他”를 직역하지 않고 “사람”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앞 문장에서 이미 나타났던 “(从来没赢过)他”를 바로 이어서 다시 제시 및 강조하고 있음으로 마지막 번역에서는 앞의

30) 명사와 대명사는 본래 각각 별개의 품사이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N(명사), N(인칭대명사)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他)”를 그대로 살리고 “这个”는 “이”의 직역 대신 화제 제시 및 강조 기능을 살려 “바로”라고 단어를 삽입하여 전달하였다. 이렇듯 ‘这/那个+N(인칭대명사)’의 한국어 번역은 직역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제시되는 여러 예문에서도 그러한 특성이 나타난다.

- (22) 在一次又一次的冲突之后, 郝回归逐渐发现自己早已不再是曾经的那个自己了, 他发现自己变了, 他早就把17岁的那个自己留在了1998年。

(《我在未来等你》电视剧)

→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충돌 이후, 학회귀는 점점 더 자신이 이미 **예전의 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진작부터 **17살의 그 자신**을 1998년도에 남겨 두었다.

→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충돌 이후, 학회귀는 점점 더 자신이 이미 **예전의 [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진작부터 **17살 적의 [ ] 자신**을 1998년도에 남겨 두었다.

위의 예시에서도 “那个自己”를 그대로 “그 자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게다가 앞뒤 “那个自己”는 각각 “曾经的(예전의)”과 “17岁的(17살의)” 한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를 더하여 “예전의 그 자신”, “17살의 그 자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전의 자신”, “17살적의 자신”과 같이 “那个”의 의미를 생략하고 전달하더라도 충분하며,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这/那个+N(인칭대명사)’가 어떤 한정어의 수식을 받는 형식<sup>31)</sup>은 자주 나타나는데, 이때 한국어 번역에서는 종종 “那个”의 의미가 생략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아래의 예시도 위와 유사한 경우이다.

31) 我却不再是过去的那个我了。

入迷的那个我, 似乎不是真我。(張大春 『重逢的告別』)

“你一定还以为我是3年前的那个我, 其实, 早已不是了。”

(23) 在这里, 有时我会问自己, 是什么连接和影响着过去、当下和将来的那个我? (赤峰新闻网 2019-08-05)

→ 여기에서, 나는 때때로 무엇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 ] 나**와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위의 마지막 예시에서도 “那个”의 의미는 생략하고, 앞 수식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대상이지만, 시간적으로 달리 존재하는 각각의 개체를 근거리, 원거리에 관계없이 “那个”를 사용하여 특정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아래 예시는 (22), (23)과 형식은 유사하지만, ‘这/那个+N(인칭대명사)’ 앞에 또 다른 인칭대명사가 “的”를 통해 결속되어 나타나, 번역 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 如果你们还是那些偏爱过《老桥》的你们的话, 那么我也还是你们的那个我。(搜狐网 2019-02-18)

→ \*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오래된 다리』를 엄청스레 좋아했던 여러분들이라면, 저 역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그 나(저)**일 것입니다.

→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오래된 다리』를 엄청스레 좋아했던 여러분들이라면, 저 역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저**일 것입니다.

예(24)의 경우도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 ‘这/那个+N(인칭대명사)’를 직역하는 것이 어색하다. 화자는 가정법을 통해 상대방과 자신을 변함없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那个我”는 “你们”의 기억 속에 형상화되어진 특정한 “我”의 모습이다. 이러한 발화 상황을 고려하여 ‘那个’를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그런)’<sup>32)</sup>이라 표현하여, 대상의 모습을 전달하는 번역을 완성하였다. 또 “你们”(여

32) “그런”의 사용 예: “그가 그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국립국어원)

러분들)과 “我”(나/저) 사이에 “的”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대상은 서로 수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이라는 말로 부연하여 번역하였다. 다른 다양한 예시를 살펴보면 “那个”를 “그런”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sup>33)</sup>

앞선 예(22)-(24)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발화 상황뿐만 아니라, ‘这/那个+N(인칭대명사)’가 앞에 어떤 대상의 수식을 받는가도 번역의 변수로 작용하여 한국어 번역에서 생략되거나, 형식 및 의미가 변이되는 등 다양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N(인칭대명사)’이 3인칭인 경우에는 또 아래와 같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 (25) a. 他的公文包里, 装满了各种各样的文件, 全都是一些让人头疼的事。你肯定会惊叹, 自己的那个他肯定是铁人, 一天能处理这么的事。所以你更要体贴你的那个他, 为了这个家, 他太不容易了。(个人图书馆 2011-05-24)

→ \* 그의 서류 가방에는 온갖 종류의 서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전부 다 골치 아픈 일 들이다. (당신이 그 서류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그 그는** 틀림없이 철인일 것이라 생각하며, 몹시 놀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 더 **그 그를** 자상하게 돌봐주어야 한다. 이 가정을 위한 그의 (역할이) 쉬운 것이 아니다.

→ (앞 번역 위와 동일) **나의 그이**는 틀림없이 철인일 것이라 생각하며, 몹시 놀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 더 **그 사람을** 자상하게 돌봐주어야 한다. 이 가정을 위한 그의 (역할이) 쉬운 것이 아니다.

- b. 别以为只有女人才会在日记里写下自己的小秘密.....男人最喜欢在日记里记下自己暗恋的那个她。(출처 상동)

→ \* 여성들만 일기에 자신의 작은 비밀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

33) “그런”이 사용된 중국어 표현을 조사한 결과, “那个”, “那种”, “那样”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 我不知道那个事实。(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那种情况。(그런 상황.) 还会有那样的事?(그런 일이 또 있을까?) (에듀월드 표준한글중사전 참고)

라.....남자는 자신이 짝사랑했던 **그 그녀**를 일기에 적어두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 여성들만 일기에 자신의 작은 비밀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남자는 자신이 짝사랑했던 **그 여인(그녀)**을 일기에 적어두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c. 祝愿单身的朋友早日找到理想中的那个他(她)。(人民网 2019-02-14)

→ \* 싱글이신 친구들은 하루빨리 이상형의 **그 그(그녀)**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싱글이신 친구들은 하루빨리 이상형의 **그(그녀)/(그사람)**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d. 收下哥的花, 忘了那个他。(腾讯视频 奇葩说)

→ \* 오빠의 꽃을 받고, **그 그는** 잊어버려.

→ 오빠의 꽃을 받고, **그는(그 사람은/그 남자는/그 녀석은)** 잊어버려.

위의 예(25a-b)는 “남성”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글쓴이는 연인, 남편 등의 대상을 직접적인 명사로 표현하지 않고, “那个他(她)”를 사용하여 대상을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위의 “那个他(她)”는 모두 화자와 청자가 암묵적으로 아는 대상으로 누구나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글쓴이가 특정 명사가 아닌 “那个他(她)”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상을 대입하고, 적용하여 글을 읽게 된다. 따라서 “他(她)”는 “那个”에 의해 암묵적으로 특정화되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자(청자)에 따라 실질적인 지칭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위의 번역에서도 “나의 그이”, “그 사람(그 남자/그 녀석)”, “그 여인”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25c)의 “那个他(她)”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개별 독자에 의해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그(그녀, 그 사람)로 일반적인 통칭을 사용하였다.

위의 (25) 전체 예문의 ‘这/那个+N(인칭대명사)’에서도 앞 소절 ‘这/那个+N(사람지칭명사)’의 내용 중 한국어 번역에서 3인칭 “他/她”와 “那个”간의 의미 충돌이 일어나 상쇄되는 경우(예(18)참고)와 같은 양상을 나타

낸다. 이는 중국어의 3인칭 대명사와 “那个”가 문자의 형태와 발음 모두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3인칭 대명사와 지시대명사는 경우에 따라서 “그”로 동일한 문자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4)</sup> 이러한 경우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那个”의 의미를 생략하거나, “那个”의 의미는 그대로 살리되 3인칭 대명사를 다른 명사 또는 “사람”으로 일반화하여 전환할 필요가 있다.

那个她    → 크 그녀 → 그 여인 그 사람		→ 크 그 那个他    → 그 남자, 그 사람, 그 녀석
---------------------------------	--	--

서정수(1994)는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의 분류에서 인칭대명사와 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 그, 저+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예: 그 사람, 저 친구 등)의 형식도 인칭대명사로 광의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품사 분류에 있어서는 일부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위와 같은 중한 번역에서는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시된 몇 가지 경우의 예시도 ‘这/那个+N(인칭대명사)’의 다양한 변모를 보여준다.

- (26) 眼前燃起飘忽不定的火焰, 火焰里闪现出另外一个我, **那个**我在问**这个**我 : 你是谁? **这个**我茫然地回答 : 我也不知道。(北大语料库)  
 → \* 눈앞에는 불꽃이 나무끼며 타오르고 있는데, 불꽃 속에서 불현 듯 (나와 똑같은 모습의) 또 다른 내가 나타났다. **그 내가 이 나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야? **이 나는** 멍한 상태로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34) “그”: 1.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2.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 (앞 번역 위와 동일) **저기( 그곳 )의 내가 여기( 이곳 )의 나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야? **여기의 나는** 명한 상태로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 (앞 번역 위와 동일) **그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야? **나는** 명한 상태로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위의 예(26)에서 “那个我”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소설이나 영화에서 재현될 수 있다. 해당 예문에서 “那个我”는 주인공 눈앞에 보인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형상이다. 나와 마주서 있는 똑같은 모습의 “那个我” 그리고 실제 하는 자기 자신은 “这个我”로 표현하였다. 두 대상을 지시대명사로 대조하고 있다. 이를 “이, 그(저)”로 직역하거나 “여기, 저기”로 장소화 하는 표현 모두 어색한 번역이 된다. 따라서 “那个我”는 “또 다른 나”라고 표현하고, “这个我”는 그에 대응하고 있는 “실제의 나”로 특별히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이 표현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음으로 “这个”의 의미는 생략하였다. 이상의 예시에서도 ‘这/那个’가 본래의 지시적 의미 보다는 다르게 전환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 아래 예(21)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 (27) 《那个我对我说》(周笔畅 歌曲)  
 →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말해》

### 3. 소결

〈표 1〉 ‘这/那个+N(사람지칭·묘사)’의 예문 및 번역양상

예 문	번역 양상
这个王晓棠(예7)	왕효당은 <b>말이죠</b> (화제 제시 및 강조, ‘这个’ 의미 변이)
这个周杰伦(예8)	주걸륜도 <b>말야</b> (화제 제시 및 강조, ‘这个’ 의미 변이)

예 문	번역 양상
这个金书记(예9)	(이) 김 서기는 <b>(말이지)</b> (화제 제시 및 강조, ‘这个’ 의미 변이)
他们这个王书记(예11)	그들 <b>(이) 왕 서기</b> (화제 제시 및 강조) - “他们”과 “王书记” = 종속관계
你那个小儿子(예12)	자네 <b>(그) 막둥이 아들</b> (여럿 중 대상구별 및 강조) - “你”와 “小儿子” = 종속관계
我那个老二(예13)	제 <b>(그) 둘째 아들</b> 은 (여럿 중 대상구별 및 강조) - “我”와 “老二” = 종속관계
我这个小干部(예14)	<b>나 같은 (이) 계급 낮은 간부</b> (특정부류 명칭)(화제 제시 및 강조) - “我”와 “小干部” = 동등관계
我这个电脑菜鸟(예15)	<b>저 같은 (이) 컴퓨터 초보자</b> (특정부류 명칭)(화제 제시 및 강조) - “我”와 “电脑菜鸟” = 동등관계
这个光头强(예10)	<b>이놈의 광두강!</b> (화제 제시 및 강조 + 주관감정 내포 ‘这个’ 형식 및 의미 변이)
你这个上海人(예16)	<b>당신 같은 상해 사람은 말이야</b> (화제 제시 및 강조 + 주관감정 내포 ‘这个’ 형식 및 의미 변이) - “你”와 “上海人” = 동등관계
你这个小气鬼(예17)	<b>이런 짠돌이...</b> (화제 제시 및 강조 + 주관감정 내포 ‘这个’ 형식 및 의미 변이) - “你”와 “小气鬼” = 동등관계
她那个女孩(예18)	<b>그 아가씨</b> (3인칭 “她”와 “那个”간 의미 상쇄) - “她”와 “女孩” = 동등관계
她那个丈夫(예19)	그녀의 <b>(그) 남편</b> (강조 + 주관감정 내포)
那个谁(예20)	<b>그 누구</b> (강조 + 주관감정 내포)

〈표 2〉 ‘这/那个+N(인칭대명사)’의 예문 및 번역양상

예 문	번역 양상
今天这个我(예21a)	지금의 [ ] 나 (화제 제시 및 강조, 번역시 ‘这个’ 의미 생략)
这个他(예21b)	그는 바로 (‘这个’ 형식 및 의미 변이)
曾经的那个自己(예22)	예전의 [ ] 자신 (번역시 ‘那个’ 의미 생략)
17岁的那个自己(예22)	17살 적의 [ ] 자신 (번역시 ‘那个’ 의미 생략)
过去、当下和将来的那个我(예23)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 ] 나 (번역시 ‘那个’ 의미 생략)
你们的那个我(예24)	그러한 저 (‘那个’ 형식 및 의미 변이)
那个她(25b,c)	그녀 / 그 여인 (3인칭 “她”와 “那个”간 의미 상쇄, 번역시 “那个” 생략 또는 인칭대명사 형식, 의미 변이)
那个他(예25a,c,d)	그 / 그 사람 / 그 남자 / 그 녀석 (3인칭 “他”와 “那个”간 의미 상쇄, 번역시 “那个” 생략 또는 인칭대명사 형식, 의미 변이)
那个我在问这个我(예26)	그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번역시 “那个” 형식, 의미 변이)
《那个我对我说》(예27)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번역시 “那个” 형식, 의미 변이)

#### IV. ‘这/那个+V/A’ 및 ‘那个+∅’

##### 1. ‘这/那个+V/A’

‘这/那个’는 일반적으로 명사와 주로 공기하지만, 동사 또는 형용사와 조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한 번역시 아래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 (28) a. 我们看的是一个整天在那儿哭的林黛玉, **这个哭**不是一般的哭, 这是绛珠仙子到人间来还泪之哭, 哭出了她的高贵。(解放日报 2014-08-18)  
 → 우리가 본 것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울고 있는 린다이위인데, **이 울음**은 보통의 울음이 아니라, 이는 강주선자가 인간 세상에 이르러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고, 이로써 그의 고귀함을 눈물로 쏟아내는 것이다.
- b. 我当时不会打仗, 我是小学教员。打了十年我们学会了, 什么叫打仗。**这个打仗**也是可以学会的。(人民日报 2011-10-11)  
 → 저는 당시에 싸움을 할 줄 몰랐어요.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10년이나 전쟁을 벌였더니, 우리도 전쟁이라는 게 뭔지 배우게 된거예요. **이 전쟁(싸움)**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더라고요.
- c. 长期睡眠不足的丈夫.....天天担心, 天天担心, **这个担心**终究还是发生了。(人民日报 2018-03-26)  
 → ? 오랫동안 수면부족에 시달리던 남편은.....매일 매일 걱정을 하더니, 결국 **이 걱정이** (실제로) 나타나버렸다.  
 → 오랫동안 수면부족에 시달리던 남편은.....매일 매일 걱정을 하더니, 결국 **이러한 걱정이** (실제로) 나타나버렸다.
- d. 等不来公交车就打了车, 但是当时身上只有五十元, 跟出租师傅说只有五十, 到了五十就让我下车吧, 结果司机大叔开了差不多20元左右就追上了一辆来往学校的公交, 当时心里**那个感动**啊。(扬子晚报 2014-08-29)  
 → 버스가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그때 50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사님에게 50원밖에 없으니, 50원이 되면 내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기사님이 거의 20원 정도 다다랐을 때, 저희 학교로 가는 버스를 따라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마음속 그 **감동이**란!

위의 예(28a-d)에서는 모두 ‘这/那个+V’가 사용되었다. 동사 “哭, 担心, 打仗, 感动”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술어의 위치에서 동작이나 감정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른 단어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된다면 번역에서도 “울다”, “걱정하다” 등 술어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들이 ‘这/那个’와 공기되면서 번역에서 서술격적인 특성

이 명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형용사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 (29) a. 他曾表示, 扮演彭德怀不讲任何条件, 愿意受**这个累**, 吃**这个苦**, 只想把角色塑造好, 这一年什么都不做了。(娱乐频道 2015-01-08)
- ? 그는 이전에 평터화이 역을 하는 것에 있어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이 수고와 고생**을 감수할 수 있으며, 그저 배역을 잘 묘사해내고 싶어서 이 1년 동안은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앞 번역 위와 동일) 기꺼이 **이러한 수고와 고생**을 감수할 수 있으며, 그저 배역을 잘 묘사해내고 싶어서 이 1년 동안은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b. “连书迷都支持我们, 我**这个**志忑就能放下了。”(中国日报网 2015-12-17)
- 소설의 팬들도 우리를 지지해줘서 저는 (그제야) **이 불안감**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 소설의 팬들도 우리를 지지해줘서 저는 (그제야) **이러한 불안감**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위와 같이 ‘这个+A’의 경우 ‘这个’를 “이”로 그대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금 어색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이러한”<sup>35)</sup>과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아래 ‘那个+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9) c. 一年以后, 马启明会游泳了, 特别是在夏天, 浑身汗滴滴的他扎到游泳池心里**那个**痛快简直没办法用语言来形容。(大学生考试网)
- 일 년 후, 마치밍은 수영을 할 줄 알게 되었다. 특히 여름에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를 때, 수영장에 몸을 담들 때, **그 시원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35) 이러하다 : ‘이렇다’의 본말로,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와 같다”의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d. 我又拍了很多很多的女孩肖像， 并把整个系列笼统地称作‘坏女孩’。  
 我的本意不是要呈现社会学意义上的那个坏。(新周刊 2014-12-25)  
 → 전 또 아주 많은 여자아이들의 사진을 찍었고요, 전체 시리즈를  
 통틀어서 “나쁜 여자아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저의 본래의 의  
 도는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그 “나쁨”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 (앞 번역 위와 동일)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그런 “나쁨”을 나타  
 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 e. 《来自星星的你》中金秀贤古装扮相, 那个秀气, 那个帅啊! 简直不像  
 人类! (国际在线 2015-03-23)  
 → \*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이 고전 복장으로 분장한 모습은,  
 (어쩔) 그 고상하고, 그 멋있는 건지! 정말 그는 사람이 아니야!  
 →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이 고전 복장으로 분장한 모습은,  
 (어쩔) 그렇게도 고상하고, 그렇게도 멋있는 건지! 정말 그는 사  
 람이 아니야!
- f. 陈阿婆去饭馆吃饭, 服务员认出来了要过来合影, 笑得那个灿烂!  
 (人民日报 2019-02-21)  
 → \* 천할머니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그녀를 알아  
 보고는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웃는 것이 그 밝은지!  
 → 천할머니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그녀를 알아보  
 고는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어쩔) 그렇게도 환하게 웃는지!

특히, 예(29e-f)와 같이 감탄의 어감을 전달할 때에는 “그”의 직접적인 번역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때 형용사가 전달하는 상태, 성질에 대한 “정도”의 표현을 감탄의 어감과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sup>36)</sup>와 같은 표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这/那个+V/A’의 전반적인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6) 그러한 정도로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예(30a-b)에서 ‘那个’는 앞에 놓인 정도부사와 결합하여 화자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예시 가운데 ‘那个’뒤에는 사실상 “너무 (나쁘다, 약삭빠르다)”, “좀 (못 봐주겠네요, 별로네요)” 등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 그렇지만 화자는 말을 아끼면서 불편하고 좋지 못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那个’의 기능에 대해서는 《现代汉语词典》 및 기타 다른 연구에서도 “직언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함”의 기능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那个’의 기능은 기본적인 지시사의 기능이 문법적으로 매우 “虚化(허화)”되어 나타난 기능이다. 그 의미도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돌려서 완곡하게 전달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那个+∅’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의미임으로 본래 기본적인 지시의 기능에서 “원거리(먼 거리)”를 나타내던 ‘那个’가 기능이 분화되어 이와 같이 쓰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또 반대로 근거리를 나타내는 ‘这个’가 이런 기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같은 논리이다. 거기다 앞에 나타나는 정도부사 또한 “太”나 “有点”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 또한 ‘那个’의 “직언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함”의 기능, 그리고 화자가 불편한 심경을 담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음으로 정도부사 역시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太”나 “有点”이 적합한 조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那个+∅’를 한국어로 옮긴 결과, 다른 문장 성분과의 조합에서 보여준 번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것)/저(것)의 직접적인 번역은 어색하였다. 따라서 ‘那个+∅’ 즉, ‘那个’가 뒤에 다른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문장이 마무리 되는 경우, 게다가 특히 위와 같이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다”<sup>38)</sup>로 번역되는 것이 비교적 어울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예(30a)에서 “这也太那个了”를 첫 번째 번역에서는 글자그대로 직역하여 “这”를 “이것도 ~”라고 하였고, 두 번째 번역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것도 ~”라고 번역하였다. 이

38) “주로 ‘조금’이나 ‘좀’ 따위의 부사와 함께 쓰여, (무엇이) 괜찮지 않다”를 표현함. 예: 친척 결혼식에 이 원피스를 입고 가는 것은 조금 그렇지?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지시사가 지칭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대칭 현상이다. 중국어의 지시사는 보통 청자에 대한 고려 없이, 화자와 지시 대상 사이의 원근을 고려해서 화자의 영역에 가까이 있으면 “这”를 쓴다. 그러나 한국어는 동일 공간에 화자와 청자가 있더라도 지시 대상이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다.<sup>39)</sup> 따라서 청자까지도 고려하며,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这/那个+X(N,V,A)’ 및 ‘那个+∅’의 중한 번역시 나타나는 은현(隱現) 및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또 이를 통해 중국어 ‘这/那个’의 다양한 기능을 다른 각도에서 재차 탐색할 수 있었다.

## V. 맺는말

한 언어와 다른 언어 간의 비교연구나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하나의 언어만을 단편적으로 관찰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특징이 보이기도 한다. 지시사의 문법적인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번역 연구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본 연구와 함께 향후에도 관련 형식을 계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这/那个’는 명사(구)와 공기하며, 이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 대체적으로 ‘이/그(저)’로 단순 대응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这/那’의 뒤에 놓이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이/그(저)’의 지시적 의미만으로 번역하기에 부족하고, 어색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본고의 관찰결과 그 가운데 ‘这/那个+N(사람지칭·묘사)’, ‘这/那个+N(인칭대명사)’ 및 ‘这/那个+V/A’에서 다양한 번역 양상이 나타났다.

39) 전기정(2008)에서 아래 예시 인용.

A, B = 동일 공간 존재, A가 책을 소유한 경우.

A : 这是什么书?(이것은 무슨 책이죠?) B : 这是汉语书。(그것은 국어책입니다.)

반대로, A, B = 동일 공간 존재, B가 책을 소유한 경우.

A : 这是什么书?(그것은 무슨 책이죠?) B : 这是汉语书。(이것은 국어책입니다.)

‘这/那个’는 단순지칭 기능 외에도 “화제 제시 및 강조”, “여럿중 대상구별 및 강조” 그리고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표현의 기능까지, 이 각각의 경우에 한국어 번역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这/那个’의 의미가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었으며, 또 ‘这/那个’의 의미가 ‘이/그(저)’의 기본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변이되는 경우도 있었다.

[번역양상 1] ‘말이야’, ‘말이죠’, ‘말이지’, ‘말인데’(어감을 고르게 하는 군말로, 상대방의 주의를 끌 때 나타나는 말)가 사용되어 화제 제시 및 강조의 기능을 표현함.

[번역양상 2] ‘这个+(특정부류 명칭, 예: 小干部、电脑菜鸟)’는 “같다”(“그런 부류에 속한다”의 뜻, 보통 ‘~같은’ 꼴로 체언 뒤에 쓰임)가 첨가되어 표현될 수 있음.

[번역양상 3] ‘这个’의 의미가 발화 상황에 의해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 강해지면서 “이런”(뜻밖에 놀라운 일이나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으로 변이되는 경우도 있음.

그 밖에도 주관적인 감정표현이 다양하게 표현됨.

[번역양상 4] ‘这/那个+N(인칭대명사)’에서의 한 가지 특이점은 한국어의 지시사와 인칭대명사 “그”의 문자적인 충돌에 의해 번역시 “那个”가 생략되거나, 인칭대명사의 형식 또는 의미가 변이되는 양상을 나타냄.

[번역양상 5] ‘这/那个+V’의 경우 동사가 명사화되어 번역됨.

[번역양상 6] ‘这/那个+A’의 경우 동사의 번역양상과 유사하게 명사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这/那个’가 ‘这/那样’ 또는 ‘这/那么’(이러한/그러한, 이렇게도/그렇게도)의 의미로 전환되어 번역됨.

[번역양상 7] ‘那个+∅’는 직언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번역시“(무엇이) 괜찮지 않다”의 표현을 가진 “그렇다”를 사용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는 <표 1-3>을 참고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 번역시 사전적인 의미 외에도 융통성 있는 의미 활용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특히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법적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발화 상황에 맞게 살리거나 혹은 적절하게 생

략 및 다른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면서도 또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중한 번역 및 중국어 지시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도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연은, 〈试探汉韩指示词的不对应现象〉, 《汉语学习》 第8期, 2005.
- 박은숙, 〈中韩语篇对比与翻译研究〉,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2012.
- 서정수,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1994.
- 송승철, 〈번역의 독립운동: 지역과 의역 논쟁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2009.
- 王曉桃, 〈한국과 중국의 지시사 비교 연구 -‘这/那’와 ‘이/그/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第8期, 2011.
- 于 婧, 〈한·중 대명사의 분류 체계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4.
- 장경희, 〈지시어‘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980.
- 전기정, 〈한국어 이,그,저와 중국어 ‘這, 那’의 지시 관계 비교〉, 《중국어 문학논집》 제49호, 2008.
- 周诗蕊, 〈중국어와 한국어 인칭 대명사의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7.
- 仇玉焮, 〈说“那个”〉, 《齐齐哈尔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5期, 1993.
- 刁世兰, 〈人称代词与“这/那”的组合规律及制约因素〉, 《湖北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6期, 2010.
- 丁启阵, 〈现代汉语“这”、“那”的语法分布〉, 《世界汉语教学》 第2期, 2003.
- 方 梅, 〈指示词“这”和“那”在北京话中的语法化〉, 《中国语文》 第4期, 2002.
- 付 敏, 〈“那个”的语法分析研究〉, 《文教资料》 第11期, 2010.
- 刘 薇, 〈现代汉语“这/那”类指示代词若干功能问题研究〉, 《安徽大学硕士

- 学位论文》第4期, 2011.
- 龙 娟, 〈汉英指示代词“这/那”与“this/that”的对译〉, 《湖南师范大学》第4期, 2013.
- 吕叔湘, 《近代汉语指代词》, 学林出版社, 1985.
- 王 力, 《中国现代语法》, 商务印书馆, 1985.
- 熊 岭, 〈现代汉语指示词功能的扩展〉, 《齐齐哈尔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10期, 2018.
- 徐默凡, 〈“这”、“那”研究述评〉, 《汉语学习》第10期, 2001.
- 张惠英, 〈闽南方言常用指示词考释〉, 《方言》第3期, 1994.
- 张惠英, 〈汉语方言代词研究〉, 《方言》第5期, 1997.
- 张济民, 〈苗语川黔滇方言的指示词〉, 《贵州民族研究》第4期, 1987.
- 张艳玲、刁世兰, 〈我那个前妻”格式中的“那个”〉, 《湖北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6期, 2006.
- 朱德熙,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1982.
- 施山绿, 〈日本語の人称代名詞への修飾に関する一考察 -指示詞の修飾を中心に-〉, 《日語日文學研究》, 2016.

### <Abstract>

When we comparative or translational research between one language and another can reveal features not found in only one language research.

In general, ‘ZHE GE / NA GE’ is combined with nouns and can be translated simply as ‘this / that’ in Korean, b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placed after ‘ZHE GE / NA GE’ It is often awkward to translate only by the descriptive meaning of ‘this / that’.

In this paper, the translation patterns of ‘ZHE GE / NA GE + N

(Proper Noun)’, ‘ZHE GE / NA GE + N(Personal Pronoun)’, ‘ZHE GE / NA GE + V / A’, and ‘NA + ∅(zero reference)’ are describ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nalysis of the meaning appearance & disappearance and variation in the translation of ‘ZHE GE / NA GE’ into Korean. ‘ZHE GE / NA GE’ not only expresses simple reference functions but also expresses “topic presentation and emphasizing”, “target distinction and emphasizing” and the speaker’s “subjective emotion”. In each case, the Korean translation is expressed in various ways, and it is natural that the meaning of ‘ZHE GE / NA GE’ is omitted, and the meaning of ‘ZHE GE / NA GE’ is not the basic form of ‘this/that’. In some cases, they may be transformed into other formats.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paper, we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use not only dictionary basic meanings but also flexible meanings in translation. In particular, it has been recognized that it is very difficult and necessary to supplement the meaning of the grammatical functions that are not visible on the surface, or to omit them properly and switch to other expressions.

**Key Words** : ‘这个’(‘ZHE GE’), ‘那个’(‘NA GE’), 지시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 중한번역(Chinese-Korean Translation).

